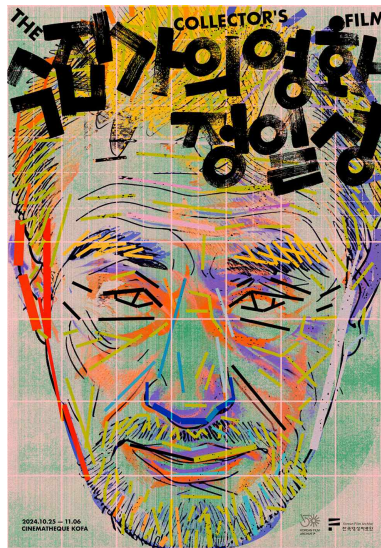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영화사의 산 증인, 정일성 촬영감독의 작품을 만나다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기획전 개최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기획전 개최
 1950년대~2000년대 한국영화사 스틸, 대본 등 희귀 수집 자료 전격 공개
 <만다라>, <최후의 증인> 등 대표작 17편 4K 복원, 35mm 필름 특별 상영
 정일성 촬영감독의 대담과 그의 촬영세계를 돌아보는 강연 마련



▲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10월 25일(금)부터 11월 6일(수)까지 시네마테크 KOFA(상암동 소재)에서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기획전을 개최한다. 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와 영상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는 국내 유일 공공 영상 아카이브이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 활용하여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 역시 영상자료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한국영화사의 산 증인인 정일성 촬영감독이 두 차례에 걸쳐 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자료는 1992년 194점, 2019년 6,643점으로 총 6,837점에 달한다. 영상자료원은 이번 기획전 기간 동안 정일성 촬영감독의 기증품 중 선별된 주요 자료들을 특별 전시하고, <화녀>, <만다라>, <최후의 증인>, <장군의 아들> 등 한국영화사의 정전이자 정일성 촬영감독의 대표작 17편을 4K 복원판과 개봉 당시 35mm 필름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 <만다라>스틸



▲ <이어도>스틸



▲ <최후의 증인> 스틸



▲ <장군의 아들>스틸

□ 1950년대~2000년대 한국영화사 스틸, 대본 등 희귀 수집 자료 전격 공개

1929년생 정일성 촬영감독은 '한국영화'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전부터 한국에서 영화를 독학하고 한국의 풍경을 포착해 온 영화인이다. 김학성 촬영기사의 조수로 도제생활을 거쳐 1957년 <가거라 슬픔이여>로 데뷔한 이후 노필, 박종호, 이성구, 김기영, 김호선, 김수용, 석래명, 강대진, 이원세, 유현목, 하길종, 변장호, 이두용, 박철수, 배창호, 하명중, 장길수 그리고 임권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감독들과 합을 맞추며 그만의 촬영세계를 완성해 갔다. 연출자가 달라지더라도 그의 화면에는 공통적으로 일제 식민지배와 해방부터 한국전쟁과 분단, 군사독재와 민주화까지 삶으로 몸소 부딪쳐 온 파란의 역사가 담겨있다. 정일성 촬영감독은 소위 한국영화의 암흑기라 일컬어지는 시기에 대형 교통사고와 암 진단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후회 없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대작 <최후의 증인>, <만다라>로 이어지는 필모그래피를 그려갔다.

정일성 촬영감독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자료는 1992년 194점, 2019년 6,643점으로 총 6,837점에 달한다. 정일성 촬영감독의 기증 자료는 촬영부로 영화계에 발을 디딘 1950년 초부터 50여 년간 총 95편의 촬영 작품(KMDB 기준)을 남기기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한국영화사의 카메라 뒤 편 현장을 담고 있다. 전체 기증 목록과 그중에서 선별된 주요 자료들은 기획전 기간 동안 시네마테크KOFA 로비에서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 <문>스틸



▲ <화녀>스틸



▲ <만추>스틸



▲ <서편제>스틸

□ 한국영화사를 수놓은 대표작 17편 상영

이번 기획전에서는 김기영 감독과의 첫 작업으로 도발적인 색채 실험의 결과물인 <화녀>(김기영, 1970), 유현목 감독과의 협업으로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을 영상으로 구현해낸 <문>(유현목, 1977), 대담한 카메라 구도로 영화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어도>(김기영, 1977), 임권택 감독과의 첫 작업으로 두 거장의 영화세계 충돌을 엿볼 수 있는 <산궁>(임권택, 1979), 한국영화사의 비극을 장르의 대서사시로 승화시킨 <최후의 증인>(이두용, 1980), 대형 교통사고와 암 진단이라는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절절한 구도의 길을 영상화한 <만다라>(1981)을 비롯하여 <만추>(김수용, 1981), <안개마을>(임권택, 1982), <길소뜸>(임권택, 1985), <황진이>(바창호, 1986), <태>(하명중, 1986), <아다다>(임권택, 1987), <장군의 아들>(임권택, 1990), <개벽>(임권택, 1991), <서편제>(임권택, 1993), <취화산>(임권택, 2002)까지 총 17편의 대표작을 상영한다. 각 상영작은 정일성 촬영감독의 자문을 바탕으로 완성하여 최초 상영하는 <장군의 아들>을 비롯한 4K 리마스터링 복원판과 개봉 당시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은 촬영감독을 비롯한 영화를 완성해내는 수많은 스태프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상영과 전시뿐 아니라, 정일성 촬영감독과의 대담과 함께 박홍열 촬영감독,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진행하는 강연을 통해 한국영화계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는 부대행사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상영일정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koreafilm.or.kr/cinema/program.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 금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

- 일 정: 2024년 10월 25일(금) ~ 11월 6일(수)
- 장 소: 시네마테크KOFA 1, 2관
- 상영작: 총 17편

	작품명	촬영감독	감독	제작연도	상영매체
1	화녀	정일성	김기영	1970	35mm 필름
2	화려한 외출		김수용	1977	4K 복원판
3	문(門)		유현목	1977	35mm 필름
4	이어도		김기영	1977	2K 복원판
5	신궁		임권택	1979	35mm 필름
6	최후의 증인		이두용	1980	4K 복원판
7	만다라		임권택	1981	2K 복원판
8	만추		김수용	1981	35mm 필름
9	안개마을		임권택	1982	4K 복원판
10	길소뜸		임권택	1985	4K 복원판
11	황진이		배창호	1986	35mm 필름
12	태		하명중	1986	4K 복원판
13	아다다		임권택	1987	35mm 필름
14	장군의 아들		임권택	1990	4K 복원판
15	개벽		임권택	1991	35mm 필름
16	서편제		임권택	1993	4K 복원판
17	취화선		임권택	2002	4K 복원판

※ 개막식: 10월 25일(금) 15:00 ~ 16:00

개막작: <만다라>(임권택, 1981)

※ 관객과의 대화

- 10월 25일(금) 16:00 <만다라> 상영 후 | 참석자: 정일성 촬영감독,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
- 10월 26일(토) 16:00 <최후의 증인> 상영 후 | 참석자: 정일성 촬영감독, 황민진 프로그래머
- 11월 6일(수) 18:00 <태> 상영 후 | 참석자: 정일성 촬영감독, 박정훈·김선령 촬영감독

※ 강연

- 11월 1일(금) 18:00 <만추> 상영 후 | 강연자: 박홍열 촬영감독
- 11월 2일(토) 16:00 <취화선> 상영 후 | 강연자: 정성일 영화평론가

개막식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님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사전 등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 한국영상자료원 전략기획팀 여은정 홍보담당 (02-3153-2064 / ej_yeo@koreafilm.or.kr)